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36호
12월 7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목대원 19년 하반기 종강예배 및 사은회

스승의 은혜에 감사, 주의 종으로서의 헌신 다짐



원장
임종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교단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 2015학년도 하반기 종강예배 및 사은회가 지난 11월 25일(월) 오전 11시 목대원 강의실에서 드려져 한 학기동안 만학의 열정을 다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의 종으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목대원 교수 이용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행 20:28-38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당

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 주신 귀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오후 4시 30분 목대원 강의실에서 열린 2019년 사은회는 전우진 원우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금자 원우회 부회장의 기도,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사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다.

김목사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생명이



설교
이용주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권면
김용덕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기도
최병진 목사
목대원 교수



사회
윤기석 목사
목대원 사무국장

다 하는 날까지 주신 사명 충성을 다 해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원생들을 축복했다. 졸업생들은 스승의 노래를 합창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파코호텔 뷔페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하며 사명의 교제를 나누었다.



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에 평생교육 가능성 확인 큰 수확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 일선 목회자들에게 도움 기대

교단 최초로 시행된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17일(목)과 18일(금) 1박 2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시행하다보니 준비 및 예고기간이 짧아 지

방회 행사, 교회 행사 등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회원들도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많은 회원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주셔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한편 시대의 생각과 문화를 통찰하고 이에 대하여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복음전달자가 될 것이다.

금번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이번 목회자평생교육과정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에게 영예로운 수료자격을 부여하며 이러한 목회자재교육과정이 더욱 발전되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총회 목회자평생교육원 -

목회자평생교육원 수료자 명단

고현규 목사, 박경숙 목사, 손세웅 목사, 이용주 목사, 정해란 목사, 김태정 전도사, 이복순 목사, 신은아 전도사, 윤인주 전도사, 김사부엘 목사, 박명규 목사, 신영희 목사, 우성현 목사, 윤지혜 목사, 이병희 목사, 이성호 목사, 임종혁 목사, 권이옥 목사, 김규호 목사, 김덕영 목사, 김상기 목사, 김진영 목사, 김종숙 목사, 문경부 목사, 박정자 목사, 방은애 목사, 변원식 목사, 심은애 목사, 양은래 목사, 옥보애 목사, 이기성 목사, 이은혜 목사, 이종원 목사, 임분택 목사, 정에스더 목사, 정제희 목사, 최은향 목사, 이종은 사모, 김성자 전도사, 김영진 전도사, 김진숙 전도사, 엄숙자 전도사, 윤진철 목사, 이성기 목사, 이성기 목사, 이은승 목사, 김기인 목사, 성배달 목사, 이규호 목사, 정석현 목사, 정세창 목사, 최병일 목사, 김순기 전도사, 이세연 목사, 김영관 목사, 이창순 목사, 김인덕 목사, 박

웅진 목사, 예정희 목사, 오세준 목사, 육준수 목사, 이경진 목사, 탁정진 목사, 한승수 목사, 이상숙 전도사, 김희분 목사, 권도진 목사, 조영란 목사, 강태순 목사, 김리함 목사, 김경근 목사, 김진원 목사, 손인환 목사, 신동임 목사, 이영희 목사, 이창모 목사, 정진균 목사, 최월성 목사, 손정희 전도사, 권용덕 목사, 최승수 목사, 김병목 목사, 안기설 목사, 이만규 목사, 정운기 목사, 안홍규 목사, 이종환 목사, 정진하 목사, 장호순 목사, 김분자 목사, 김진경 목사, 김인찬 목사, 오혜순 목사, 이명순 목사, 장영수 목사, 전남순 목사, 정의섭 목사, 김기진 목사, 박성환 목사, 김근설 목사, 류성배 목사, 박주동 목사, 이은진 목사, 이윤로 목사, 구자정 전도사, 박명금 전도사, 박하리 전도사, 신정숙 전도사, 안미경 전도사, 양승희 전도사, 오수남 전도사, 윤창조 전도사, 이현숙 전도사, 이화리 전도사, 임형준 목사

이희성 전도사, 임상미 전도사, 전성희 전도사, 권정식 목사, 김은수 목사, 김진희 목사, 성기찬 목사, 오경덕 목사, 강태진 목사, 도사현 목사, 이항구 목사, 고영권 목사, 김명주 목사, 김윤성 목사, 박정옥 목사, 임신지 목사, 정한부 목사, 조병희 목사, 조은혜 목사, 최계순 목사, 한명정 목사, 한석현 목사, 한순남 목사, 김경옥 목사, 김성규 목사, 박영옥 목사, 옥경숙 목사, 이한수 목사, 황연선 목사, 조길수 목사, 심해원 목사, 최형택 목사, 김대성 목사, 김준덕 목사, 민순복 목사, 서베드로 목사, 왕상연 목사, 정복래 목사, 조사랑 목사, 김건수 목사, 안재홍 목사, 차민성 전도사, 차홍식 목사, 윤기석 목사, 최병애 목사, 김진희 목사, 양은래 목사, 신재영 목사, 김용덕 목사, 정영진 목사, 조선남 목사, 문찬우 목사, 박근 목사, 임형준 목사



교단 최초로 시행된 제1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 목회자재교육 프로그램 교육광경.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5:22~26)



조용목 목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다운 품성을 갖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갖게 되는 성품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의 성품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곤란과 희생을 감내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락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빌립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였습니. 성도는 당면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으면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소재인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화평입니다.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얻은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넷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주님을 섬겨 봉사하는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갖게 되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섯째는, 자비입니다. 자비에 해당하는 성령원어는 '관용, 너그러움, 부드러운' 등을 뜻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

여 주십니다. 이러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섯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번역된 원어와 자비라고 번역된 원어는 모두 친절함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관대하여 견책하고 바로잡아 주는 데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양선입니다. 이러한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곱째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많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덟째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의중을 생각지 않고 속단하거나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충만을 받은 후에는 성품이 크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공개적인 책망도 달게 받았습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홉째는,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도는 억지나 무리나 탐심으로 행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살피고 이에 순응하는 데서 비롯되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수양과 인격도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며, 성령께서 관여하고 주도하여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옛 사람의 본성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된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담대한 믿음으로 시대적 사명 감당”

‘교역자, 장로 기도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교역자, 장로 기도회가 지난 11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교역자와 장로들은 그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성도와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힘써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찬송하고, 교회의 비전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장로성가단의 특송에 이어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창 50:20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교역자와 장로들을 격려했다.

조용목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두려워한 것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름짓어 기도하고 찬송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변화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일하시면 약한 자들의 도모가 하사가 되고, 약이 선으로 바뀌게 된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교역자와 장로들은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 큰 시련을 통해 국민이 각성되게 되어 나라에 전위위복이 되고, 북한이 자유와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와 함께 ‘교회와 성도생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랑과 봉사도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조목사는 교역자와 장로들이 모두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축원하였다.



“원로목회자 위한 사업에 앞장설 것”

원로목회자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지난 1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많은 원로목회자들과 교계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 신진목 목사를 제2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 사단법인 법인허가를 취득한 이래 첫 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목회자의 모임으로 원로목회자에 대한 복지와 후원을 확충하고 건강과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이날 이사장에 취임한 신진목 목사는 취임사에서 “평생 목회의 현장에서 살아오신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재단을 위해 남은 생애를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하고 “지속적인 원로목회자를 위한 사업에도 앞장 설 것”을 밝혔다.

초대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의 원로에 대한 인식과 원로목회자의 염원인 원로목회자회관 건립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임식을 진행한 이주태 정로(한국기독교



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그동안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바친 원로목회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의 법인설립과 이사장과 이사취임식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원로목사님을 섬기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사 강진분·김동권·김병형·김윤기·김재용·김진호·문세광·송용필·이용규·지덕·최병두·황수원 목사(가나다순) △서기 한창영 목사 △회계 이훈규 목사

△삼임이사 이주태 정로 △실행위원회 위원장 문세광 목사 △삼임위원장 신동진·임화영·박장옥·박재목·김근배 목사 △총무 현광희 목사 △부총무 조병완 목사 △서기 김종희 목사 △부서기 이명숙 사모 △회계 이순덕 목사 △부회계 이경애 목사 △감사 오세영·박상덕 목사 △실행위원회 위원 김화자 사모, 문무열·서태봉·우종완·장정국·서윤갑·정규래·조재래 목사 △사무총장 이준영 목사 △기획위원장 문형봉 정로 △홍보위원장 오형국 국장

한장총 제37회 대표회장에 김수읍 목사

“장로교 정체성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7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6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려 임원선출과 함께 37회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는 한장총 현 상임회장인 김수읍 목사를 정관에 따라 추대를 하였고, 상임회장에는 현 합동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총 84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 개최예배에서 송태섭 목사(제36대 대표회장)가 설교를 하였으며 윤희구 목사(제29대 대표회장)가 축도순서를 맡았다.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김수읍 목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아 한장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게 되었다.”며, “한장총 5대 사업 중에 나라사랑 미

스바 기도회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회장으로 당선된 김종준 목사는 “일 년 간 대표회장을 도우며 장로교 연합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배웠다”며, “앞으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통하여 장로교정체성회복을 우선과제로 삼아서 일을 하겠

다.”며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새 임원 및 감사에는 서기에 황연식 목사(호천), 회록서기 김종평 목사(백석), 회계에 안옥섭 정로(통합), 부서기 정성엽 목사(합신), 부회록서기 강세창 목사(합동통신), 부회계 김충무 정로(고신) 그리고 총무에는 최우식 목사(합동) 등 인준을 받았다.



연세대연합신대 총동문회, 제24차 정기총회

신임대표회장에 조예환 목사 만장일치 추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제24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1일(월) 연세동문회관에서 열려 신임대표회장 조예환 목사(부천갈보리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조예환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람대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과 자세

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직임을 감당하겠다”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총동문회에 바라시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대와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점명 행사보고, 감사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 등을 유인물로 받은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대표회장 조예환 목사, 수석부회장에 정상업 목사, 서기에 엄기영 목사, 회계에 한상용 목사 등 신임원을 선출하며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조예환 목사의 인도로 정상업 목사(실무부회장)의 기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영풍회 제37대 회장 이성배 목사 선출

‘한국기독교영풍회 36년사 출판감사예배’ 함께 드려져



한국기독교영풍회가 지난 11월 25일(월) 경기도 시흥시 관나루교회(담임 이성배 목사)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사명 감당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상임회장 이성배 목사의 인도로 총본부장 이규봉 목사의 기도, 서기 강민석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한영훈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

다. 한 목사는 잠 16:24 말씀을 본문으로 ‘천한 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말의 위력은 상상보다 크다. 말한 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서 “우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다. 착하고 선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되자”고 청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복지회장 최령암 목사

와 섬외회장 정예희 목사, 선교회장 조정환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풍회 부흥발전을 위해’, ‘정기총회와 회원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사무총장 권영만 목사의 광고와 증경회장 우제돈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총회는 4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신임회원 인준을 비롯해 각종 보고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성배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임기 동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상임회장에는 이규봉 목사, 총본부장 권영만 목사, 사무총장 우창희 목사, 감사 박병식 목사, 오범열 목사, 김정일 목사가 새롭게 선임됐다.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제24차 정기총회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 위해 헌신 다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는 1998년 1월 23일 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활발한 연합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12월 2일(월)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 힘을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정기도총회 증경총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애장 개혁신교회장 박길순 목사의 성경봉독, 애장 합동부흥 총회장 김권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첫 1-8-15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받은 일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일꾼됨을 감시드리고 충성을 다해 맡은 직분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장합동연합 총무 정한 목사,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총회장 이은권

목사가 각각 주례를 인도했으며 애장개혁신교총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회부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의에 있어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인도로 이승권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부처리에 들어가 절차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이사인 김영의 목사의 회원 점명, 의장이 개회됨을 선포하였다. 이어 절차보고와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이사장 업무보고와 총무이사 사업보고, 재무보고 서경숙 목사, 김봉희 목사가 감사보고를 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모든 임원은 4년 임기 만료됨에 따라 다시 선출하여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를 추대하고 신 임원진은 이사 노종관 목사, 양정은 목사, 박형렬 목사, 김권원 목사, 최옥석 목사, 임정래 목사, 이영춘 목사, 서경숙 목사, 하용준 목사, 이승권 목사, 신백팔 목사, 한세전 목사, 김병섭 목사, 한성옥 목사, 임세준 목사, 김영의 목사라고 하고 감사 최점순 목사, 김성희 목사 등을 신임원으로 선출하였다.



제2회 아루메루 지역 연합예배 및 성가제

CTS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에서 행사 진행

국내외 소외된 계층을 돕는 CTS인터내셔널(이사장 김정철, 이하 CTS) 탄자니아 지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금) 제2회 아루메루 지역 연합예배 및 성가제를 진행했다.

2018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루메루지역(단 단위) 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18개 팀이 자원에 예산전을 치르고, 본선에 9개 팀이 찬양을 드렸다.

탄자니아에서 초교파적으로 진행된 이번 성가제는 지역에 다양한 교회 연합모임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내 복음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CTS의 이번 행사는 한국시간 기준 11월

29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CTS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문의, CTS인터내셔널 정자영 팀장 (02)6333-1167.

제36회 예성 부흥사회 국내 연수

회원간 친교와 단합의 시간 가져



연말을 앞둔 가운데 제36회 예성 부흥사회(총재 이상문 목사, 대표회장 윤필석 목사)

국내 연수가 지난 1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제주시 산도1동에 위치한 제주교회

(이윤영 목사)에서 진행됐다.

‘성결은 부흥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이상문 목사(총재, 전도와 부흥)와 노윤식 목사(상임회장, 성결과 부흥)가 강사로 나선 2회의 세미나와 회원 간 친교와 단합의 시간으로 일정이 이뤄졌다.

한편, 애성 부흥사회는 12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오산리교회(장기금식기도원)에서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부흥사회 문제해결축복 부흥대성회’를 주관할 예정이며, 또 부흥사회 신년대회는 2020년 1월 3일(금) 오전 11시 주님앞에제일교회(노윤식 목사)에서 갖기로 했다.

예장중앙, 총회장 선거 개정안 ‘부결’

정기총회 일단 보류, 재 논의 후 추후공지

총회장 불법선거 논란으로 1년 여간 파행을 거듭해오고 있는 예장중앙총회(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월계동 총회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당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총회장

선거 규정의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어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전체 총대 516명중 319명이 선거규칙 개정안 투표에 참여했다.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 인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수차례의 거듭된 확인



끝에 나온 최종 결과는 찬성 212표에 그쳤다. 개정안 통과를 위한 최소 숫자는 21666표. 결국 단 한 표가 모자라 개정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폐회를 선언한 후 또한 12월 17일경으로 내정됐던 제50회기 정기총회와 관련해서는 재논의 후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번 선거규칙 개정안의 부결은 총회정상화를 염원하는 교단 회원들에게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선거방식과 한참 동떨어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현행 규칙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일본지방회

일본지방회(회장 최남도 목사)는 지난 11월 27일(수), 28일(목) 이틀간 일본시가현 사바에시에 있는 순복음사바에교회(염순복 목사 시무)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첫째 날, 정기지방회 예배는 지방회장 최남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염순복 목사의 기도,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에 9:10, 15-16 말씀을 본문으로 '목적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이 대적 하난에 의해 물살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난의 은혜와 예수의 믿음과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또,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몇 번이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만 충실했지 그 부산물로 파라고



는 재물에는 관여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주의 종이 된 우리도 부산물에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만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 부산물은 그냥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충실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저녁에는 회순에 의해 정기지방회를 열고 새 회기 회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는데, 이날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남도 목사(하리복음교회), 부회장 연순복 목사(순복음사바에교회), 총무 김현정 목사(쓰루가살롬교

회), 서기 성상훈 목사(가나자와 독립그리스도교회), 회계 이병연 전도사(순복음사바에교회), 감사 김복순 목사(후쿠오카생물교회).

이튿날에는 회망의그리스도교회(타니구찌테츠오 목사 시무)에서 예하성 일본신학교의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최남도 목사의 사회로 연순복 목사의 기도,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어려움과 고난만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항상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자"고 전했다. 이후 타니구찌테츠오 목사의 권면, 오승욱 학장과 김민찬 목사의 졸업식 인도,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가진 후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라’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11월 28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중앙교회(담임 박영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

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호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 옥경숙 목사(물대동신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마 21:33-46 말씀을 본문으로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머릿돌인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김수여 목사(대서아신교)의 헌금기도와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회무를 진행한 후, 순복음중앙교회(담임 박영욱 목사)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성령충만 및 구국기도회’ 개최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11월 14일(목) 오후 9시 대전양무리교회(담임 정운기 목사)에서 '성령충만 및 구국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가 수 1:1-7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엄 목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행동의 복을 받은 이유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께다'는 말씀을 받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며, "여호수아가 40년을 한결같이 모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회막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것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

공경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정운기 목사의 인도로 국가와 한국 교회, 그리고 성기는 교회의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광양교회, 장로장립 및 서리집사 임명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광양교회(유용근 목사 시무)에서 장로장립 임직 및 서리



집사 임명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용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기도, 배용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성경봉독과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복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

졌다.

백 목사는 갈 6:11~18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이어 2부는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의 집례로 이경규, 임성택 안수집사의 장로장립 임직식을 가졌고, 3부에서는 순복음광양교회 담임 유용근 목사의 인도로 안선희 권철과 안정옥 성도가 서리집사로 임명 되었다.

이날 축사는 최형택 목사(광양은혜와진리교회)가 전했으며, 권면에는 양희성 목사(순복음광주중앙교회)와 황용연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가 맡았다.

증경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풍성한 만찬을 나누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역사를 기다리며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난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새김전교회에서(담임 신재영 목사)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사(주산안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기도와 이항구 목사의 말씀봉독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회장 도사현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가 삼삼 7:8-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역사가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선포하였다.



설교 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위해 성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가 있었고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장 도사현 목사의 인도로 월례회가 진행되었고 지방회 회계 정인철 목사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에서 이야기 된 내용들 및 속지사항을 지방회장 도사현 목사가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회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월례회를 마쳤다.

그 후 새김전교회(담임 신재영 목사)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먹으며 식사 장소인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담소를 나누며 회기예배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성서 속 성막을 재현한 ‘세계성막복음센터’ 견학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11월 7일(목) 세계성막복음센터를 견학하고 성서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놀라운 현장에서 성서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이날 오전 9시, 대전양무리교회와 은혜와찬양교회에서 각각 출발한 회원들은 청안산 가리휴게소에서 합류하여 세계성막복음센터가 있는 팽백 광은기도에 11시 20분 도착했다.

기도에 도착한 회원들은 먼저 예배를 드린 후 통성기도시간에 자유롭게 미음껏 부르짖어 함께 기도한 후에, 성막견학을 위해 세계성막복음센터에 들어섰다.

잠시 영상을 통하여 성막견학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성화를 감상하고, 솔로몬 성전과 노아의 방주관, 구약성서유물과 복식, 토기전시관을 둘러본 후에, 성막동문을 통하여 성막 뜰에 들어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치수(성경의 기록대로 재현된, 울타리, 반제단, 물두멍, 성소(떡상, 등대, 분향단)와 지성소(약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만나함아리, 이룬의 락난 지팡이)를 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할 죄인을 위해,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황소 두 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위로부터 둘로 찢어지고, 친히 죄속한 제물 되시고, 그 피로써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전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 후에 은혜와찬양교회로 자리를 옮겨,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인도로 지난 10월 28일 실행위원회 의결사항을 듣고, 대전지방회 주관으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밤 9시-12시까지 '성령충만 및 구국기도회' 모임을 갖기로 의결했다. 첫 기도모임을 11월 14일(목) 오후 9시에 대전양무리교회(정운기 목사)에서 갖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수양회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1월 25일(월)~27(수)까지 2박 3일간 제주

도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첫째날인 25일, 회원들은 김포공항에서 7



시 비행기로 출발, 제주도에 도착하여 새미는 종의 동산으로 향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조감한 조각상을 보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맛있는 제주 갈치조림으로 점심을 먹고 카멜리아힐(동백꽃 동산)에서 각양각색

의 동백꽃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조를 찬양하였다. 제주명물 흑돼지로 저녁을 먹은 후에는 숙소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이번 수양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둘째날에는 위터쇼와 제주아쿠아플레넷을 관람하고 이기풍 선교관에 방문하였다. 첫

박한 환경의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신 이기풍 목사의 일대기를 보면서 뜨거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날, 제주한미교회(담임 김건수 목사)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김건수 목사와 한미교회를 위하여 다함께 기도하였다.

이튿날 2박 3일의 일정을 뒤로하고 몸과 마음의 힘을 얻은 회원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목회할 것을 다짐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전 안동시 기독교연합회장
- 대구경북지방회 중경회장
- 안동성곡교회

세상에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 학교에 입학, 새로운 직장에 취업, 군 입대, 결혼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35)

결혼도 연합이지만 완전한 사람끼리 연합이 아니라 서로가 묶는 배필로서 50대 50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입니다. 특별한 상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빌 3:7-1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50+50이 아니라 100대0입니다. 특히 구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조건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

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그렇게말했지만 당시에유대인은 구원도 할례를 받는 문제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나타나자 황급히 피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대선포인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갈 2:14) 진리는 어느 누구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일정 부분 요구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은 가톨릭이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의 뿌리는 가톨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즉 성경입니다. 특정 종파나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큰 집이고 가톨릭은 다른 집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모든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가톨릭의 발원은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끝나고 주후 380년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국교로 선포된 배경은 당시 다양한 종교가 범람한 로마를 종교로 규합하여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기독교만 이름으로 정치적 조직인 가톨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는 급속히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

는 기독교인은 그들과 섞일 수 없으니 가혹한 박해와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악명 높은 종교 재판입니다. 이 종교재판으로 600년간 무려 5,000만명 이상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대략 5,000만이었으니 대살륙인 것입니다. 아직도 얼마무런 사고는 있어도 정식 사고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무뎠게 타락합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신격화와 아기 예수,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가톨릭이며 교황입니다. 즉 교황이 세웠으니 교황이 세운 자들 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교황의 방한 기간에 광화문에서 124명의 시복식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교황이 무슨 자격으로 죽은 자에 대해 시복식을 할니까?

가톨릭은 타락이 아닙니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입니다. 마틴 루터존스 목사는 “가톨릭이야말로 사단이 만든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교황교일뿐입니다. 그런데 소위 교계 지도자라는분들이 가톨릭과 직제 통일이라는 괴상망측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명을 했더니 더 거가막합니다. 아무런 협의해도 가톨릭은 절대로 안바뀌며 교회가 그 직제에 흡수될 뿐입니다. 가톨릭은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음녀입니다.

믿고 따르겠는가?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판사는 정치가가 아니다. 이념의 포로가 아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이며, 버팀목이다. 더군다나 대법원은 어떤 정치나 이념으로부터도 속박을 받지 말아야 하고,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고 오직 법의 원칙과 기준, 그 가치를 엄숙히 지켜서 판결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특히 대법원은 ‘정치 도구화’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역사를 예극하고 폄하하는 것을 돕는 대법원이라면, 대법관들이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 그리고 역사의 다양성을 말하기 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양심과 바른 법리와 공정과 정의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그 임자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스스로 이런 사법부를 만들겠는가?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역사에 대한 바른 판단에 모욕을 보인 대법원

우리 대법원(일부 대법관)이 사고를 쳤다. 지난 21일 대법원에서는 ‘백년 전쟁’에 대한 영상물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영상물은 지난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여 시민방송 RTV가 2013년에 위성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십 차례 방송하였다.

이것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심에 걸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 넣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제재가 정당함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왔고, 대법원은 이를 대법관 7대6으로 ‘문제없음’을 판결한 것이다.

왜 이 방송물이 문제가 되는가? 이 방송

물은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100년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내용과 표현에서 대중이 보는 방송물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와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가장한 왜곡이나 폄하, 혹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의문과 해석을 늘어놓으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니라 선동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 ‘백년전쟁’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들만 보아도, 이 방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 방송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플레이보이’ ‘하와이 강배’ ‘돌대다리’ ‘찍은 대가리’라고 표현했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이 방송물은 자격미달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뽕 같은 인간’ ‘수출주도를 미국 요구’에 의한 것 등 그야말로 부정적인 표현들을 총동원하여 객관적 역사와 인물 평가보다는 악의적으로 만든 방송물임을 어렵지 않게 판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 방송물에 대하여 6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6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영수 대법관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이런 불평하고 불쾌한

방송물을 ‘역사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라며 1.2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한다.

문제는 이 7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김영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역임) 박정화 대법관(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민변 회장 역임) 노정희 대법관(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인물들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런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동 정

한인교류협력기구 특별공로상



지난 11월 28일 (목) 미국 버지니아 주 David J. Andersen 지도목사에 게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특별공로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는 미국 내 한국인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특별공로상을 시상하게 되었다.

감신대 새총장에 이후정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1월 15일(금) 감리교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15대 총장에 이후정 교수(교회사)를 선출했다. 이 후정 총장은 감신대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 대학원장 등을 거쳤으며, 오는 2020년 2월 1일자로 총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남대 신임 총장에 이광섭 교수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이사장 우영수)은 지난 11월 28일(월) 이사회를 열고 화공신소재공학과 이광섭 교수를 제17대 한남대학교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총장은 1992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대학원장,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UPMA 신임 이사장 박정곤 목사



75억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전도종족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설립된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가 지난 11월 28(월)~29일(화) 거제고현교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8년간 UPMA 이사장으로 섬긴 김윤하 부천침례교회 원로목사에 이어 박정곤 목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진화론의 사회적, 종교적, 교육적 영향〉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진화론의 실체가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고, 그 결과 현대 사회의 각종 사회 병리 현상들(낙태, 자살, 마약, 살인, 성폭력, 일등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 깊이 있게 살펴 본다

반 진화론 학술 단체를 표방하는 사단법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사)교진추는 오는 12월 14일(토),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진화론의 사회적, 종교적, 교육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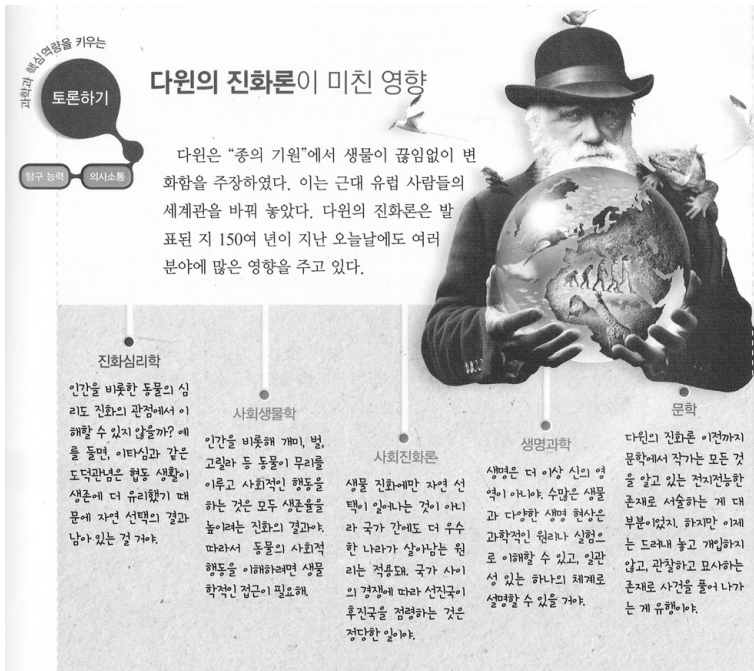
(사)교진추는 다음과 같이 학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말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신봉하는 『과학』 교과서의 영향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과학 교과서의 내용 중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기원(起源)에 관한 문제는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역사적으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진화론만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에서 진화론만을 유일한 기원론으로 기술한 지 7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몰락해 가는 원인을 “진화론과 자유주의신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조셉 톤(Josef Ton) 신학자의 기고문을 기독교 사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사)교진추는 진화론이 단순한 과학의 한 가설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 이 사회와 종교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의 주제들은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져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첫 순서로는 (사)교진추의 학술위원회 고문이자 30년 이상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임번삼 박사(미생물학)가 〈진화론이 세계관과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화론의 실체가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고, 그 결과 현대 사회의 각종 사회 병리 현상들(낙태, 자살, 마약, 살인, 성폭력, 일등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 깊이 있게 살펴본다고 한다.

두 번째 순서로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병환 교수(조신학)가 〈진화론이 기독교 신학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기독교 방송이나 일부 신학교에서조차 공공연히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 방법일 수 있다고 전전하고 있는 “유신진화론”의 신학적인 문제점과 유해성에 대해 정통 신학자로서의 학문적 견해를 자세히 검토해 준다고 한다.

세 번째 순서로는 한동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교진추의 교과서 집필 팀장인 김종배 교수(생화학)



가 지난 몇 년간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를 직접 집필해 오면서 수집한 자료들과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이 끼친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준다고 한다. 특별히 김종배 교수는 과학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가의 미래 원천 과학 기술들을 가르치고, 흥미를 유발시키기에도 지면이 부족한데 종교적 질문에 가까운 기원 과학을 지나치게 많은 분량으로 가르치는 것과 기원론을 과학적으로 기술하다 보니 학생들은 과학적 사실과 가설을 구분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순서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이자 부산대학교의 김원평 교수(물리학)가 진화론에 의해 현대 사회의 최고 가치 중 하나가 되어 버린 인권(人權)이 보편타당하다 여겨지던 전통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교과서에서 미저 동성애를 미화하며, AIDS 확산, 전통 결혼관의 파괴를 통한 사회 혼란 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한다.

교과서의 바른 개정을 목표로 출범한 (사)교진추

가 학술단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만큼은 위와 같은 깊은 문제의식 속에 교과서 속의 진화론이 개신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사회적, 종교적, 교육적 영향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독교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겠다고 하며, 발표 내용은 별도의 책자를 통해 공개한다고 한다.

끝으로 본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한 (사)교진추는 이러한 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없다든지, 학문적으로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자리가 시발점이 되어 향후 올바른 방향의 과학 교과서 개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해당 심포지엄에 관한 자세한 시간 순서 등은 첨부 아래의 안내 글을 클릭하거나 (사)교진추 홈페이지(<http://str.or.kr>)에 접속하면 된다. 해당 심포지엄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사)교진추의 정기총회 행사가 있으며, 사전 예약한 참석자들에게 심포지엄 시작 전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식사 예약은 (사)교진추 사무실(031-273-8677)로 하면 된다.

‘2019 CTS제주방송 후원 감사의 밤’ 개최

다음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 갑니다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은 지난 11월 28일(목) 제주시 아라동 제주성안교회(담임목사 류정길) 이기풍 기념홀에서 CTS제주방송 운영이사과 위원, 지역교회 목회자 및 후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CTS 제주방송 후원 감사의 밤’을 개최하고 올 한해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후원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 동안 CTS제주방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밤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1부 ‘만찬’과 2부 ‘감사에 밤 및 후원 감사의 밤’ 순서로 진행됐다.

CTS제주방송 부이사장 이기원 목사(서귀포성결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운영이사 손범수 목사(안덕교회)의 기도, 운영이사 유수영 목사(함께하는교회)의 설교, 예림중앙단(제주성안교회) 특별연주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삼상 1:9-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유수영 목사는 “제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이 전달될 수 있도록 CTS제주방송이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것”이라고 전하면서 “CTS제주방송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순수복음방송을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와 글로벌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세대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후원 감사의 밤 행사에서는 2019년 주요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와 CTS제주방송 후원자들의 후원 스토리 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한국사회를 밝히는 콘텐츠로 세상에 희망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2020년 비전선포가 진행됐다.



제3차 도·농 교회 교류 교류 세미나

예성 농어촌부, 사례발표시간도 가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문정민 목사) 농어촌부는 지난 11월 12일(화) 오후 1시 안양 성결대학교 제1관에서 ‘제3차 도·농 교회 교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윤식 목사(총회 농어촌부장)가 ‘농어촌선교와 하나님나라’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 주제강의를 맡았다.

이어 김현기 목사(주님의교회)의 ‘도시교회의 농어촌선교 사례발표 및 나아갈 방향’, 이주용 목사(예성선교회 순회전도단 단장)의 ‘농촌 순회전도 보고와 복음전

도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가 진행됐으며, 손함모 목사(강서교회)는 ‘강서교회의 농어촌선교 사례’라는 제목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한편, 세미나 시작 전 예배에서는 이광섭 정로(총회 부회계)의 기도 후 문정민 목사(총회장)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이강춘 목사(총회 총무)의 축사와 허상범 목사(총회 선교국장)의 광고가 있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예성 원로장로회(회장 나용식 장로)에서 농어촌교회 기원다 지원금 100만 원을 총회 농어촌부로 전달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보훈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회위원회
군선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훌륭한 군사 시니어 3기 모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 119:28

기간 | 12/19-21
장소 | 괴산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대상 | 40세 이상 장년
회비 | 무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문의 | 010-5145-3816
(인터뷰 후 등록)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 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총회목회대학원 2019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열려

총회목회대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은 지난 12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2019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4일간의 계절학기 강좌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대표기도, 윤기석 목사의 성경봉독,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막 6:14-16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역자들이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절학기 참가자들을 축복했다.

박성천 원우회 회장의 헌금기도 후 윤기석 목사의 광고, 목대원 교수 김용덕 목사(교단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목대원생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준 하반기 계절학기는 오후 1시 오순절 조직 신학(김용덕 교수)을 시작으로 누기복음 2장 연구-동방박사와 목자들(최병진 교수), 설교자와 나(김인찬 교수), 목회와 실제 연구2(이용주 교수), 목회상담학 연구 2(강태진 교수), 등의 강좌가 4일간 집중

적으로 이어져 열과 성으로 준비된 강좌가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었으며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순절신학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정립된 신학으로 전수받았다.

수년째 뜨거운 관심 속에 여름, 겨울 계절학기로 이어온 이 강좌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 속에 주요강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목회일선에서 오순절 성령충만운동의 확산을 위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창대교회, 이전 예배 및 송년기도회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장호순 목사) 이전 예배 및 송년기도회가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창대교회(담임 김영희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개최됐다.

이날 1부 이전예배는 김정수 목사(아름다운교회)의 찬양인도,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성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원분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대표

기도,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창대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순복음금강교회)는 창 39:19-23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1. 꿈이 있는 사람 2. 순결한 사람 3. 인내의 사람 4.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고 축복했다.

이어 2부 송년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직전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가,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증경지방회장 소영진 목사(신부순복음교회)가,

교회(순복음창대)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증경지방회장 황수환 목사(순복음나눔교회)가 인도 하였으며 인사 및 광고는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창대교회)가 감사의 인사와 인쇄 말씀을 전하고 기도 부탁과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증경지방회장 임영진 목사(순복음부활교회)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3부 교제 시간에는 순복음창대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11차 조찬기도회, 교회의 사명 감당 다짐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19년도 11차 조찬기도회를 11월 26일(토) 오전 7시 삼광장로교회(담임 박노섭 목사)에서 가졌다.

홍성용 목사(아산시기독교연합회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먼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환영사를 통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월마다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참석하여 기도에 힘써주시고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만이 교회의 소망이며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기에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아산중앙침례교회)의 대표기도,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신임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예방중앙침례교회)가 벤전 4:7-11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하며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겨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섬김 받기 보다는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헌서 섬김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때 우리는 정진 차리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헌서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고 역설하고 고문 강상철 목사(시온감리교회 원로)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보고회는 삼임회장 이승수 목사(양문교회)의 사회로, 먼저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신임대표회장에 취임한 김병완 목사에게 본회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가 취임축하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정현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한미일 공조와 패스트트랙 제를 위하여 보고하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기도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연합회 총무 이기연 목사는 연합회 활동보고를 통해 12월 1일 주일 오후 4시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있을 성탄축하예배 및 성탄트리점식과 성미(10kg) 1,000포를 전달하는 기념식에 성도들과 함께 참석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3부 기도회는 삼임회장 박노섭 목사(삼광

교회)의 사회로 제목기도로 먼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협동총무 정수희 목사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서기정진학 목사가, '이산 성사회를 위하여' 지도위원 최순식 목사가, '성령증정제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박해서 정로(후원회)가, '아산시기도자들을 위하여' 고문 임기석 목사가 각각 기도하고 이어 합심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참석자들은 삼광장로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함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진등용 목사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신임대표회장에 취임한 김병완 목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삼 임 회 장

사무총장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시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관진 목사, 차주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원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안홍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서기 정진학 목사

회계 김이래 목사

재무 박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박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1인 미디어시대, 유튜브로 복음 전파

〈제1회 CTS 방송아카데미〉 11월 7일(목)~12월 5일(목), 광림교회 시온성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법’을 배울 수 있는 CTS방송아카데미가 광림교회(강남구 신사동)에서 진행되었다. 교육 일정은 11월 7일(목)부터 12월 5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총 5회차 교육)에 광림교회 본당 시온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수강료는 2만원이고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필기구이다.

교육 취지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영상 제작 기법을 습득하여 향후 방송분야에서 봉사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 지역자를 양성하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기초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인기있는 유튜브에서 미디어 선교 영상을 올려 채널 만들기를 완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1회차 영상 기획, 2회차 촬영 기초, 3회차 4회차 영상 편집(편집물: KINEMASTER), 5회차 유튜브에 내 채널 만들기이다. 강사는 CTS기독교TV 임철수 선교국장 외 1명이며, 교육 인원은 총 20명이다.

광림방송(KLB) 유상균 PD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다.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우리 광림교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성전과 선교지,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봉사자를 세워 유튜브에서 내가 만드는 복음 소식 채널을

만들고 광림방송과 연계해 미디어선교를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유상균 PD 010-3387-0731

글로벌선진학교 전국중등축구리그 청룡그룹 조별 1위

내년 2월에 치러지는 춘계연맹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혀

글로벌선진학교 중학교 축구부는 ‘2019 전국중등 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에 출전하여 전 경기를 승리하며 이끌며 상위 스플릿 청룡그룹 조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11월 8일~17일까지 경남 창원스포츠파크에서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중등축구 리그 상위권 56개팀 1,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1주차(11.8~11.10)는 조별리그를 통해 청룡그룹(각 조 1-2위), 백호그룹(각 조 3-4위)으로 참가팀을 재

편성하고 2주차(11.15~11.17)는 스플릿리그로 진행됐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시흥 정왕FC를 첫 경기 상대로 만나 전반 24분 신대환의 송곳 같은 단독 드리블로 첫 골을 기록하였으며 이어 전반 35분 신대환의 어시스트를 받은 김정현이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했다. 경기 FC모현과 2:1로 승리하였고(전반 31분/이준의 골(홍광섭 어시스트), 후반 40분/문재정 골(송태관 어시스트)), 매탄중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컨

디션이 완벽했던 문재정이 전반 23분 한지원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문을 연 뒤, 이어 전반 32분 완벽한 테크닉을 자랑하는 박준서의 드리블이 상대의 골문을 한 번 더 열었다.

후반 중반에 매탄중의 첫 골이 있었으나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글로벌선진학교는 더 이상 밀림이 없었다. 네 번째 경기인 시흥시민구단과 1:0 승(후반 30분/박준서 골(홍광섭 어시스트)), 다섯 번째 경기인 SAHAF와 2:1 승(후반 8분 박준서 골, 후반 39분 박준서 골(문재정 어시스트)), 마지막 경기인 완주중과는 5:0 대승하였고(전반 6분/박준서 골(한지원 어시스트), 후반 4분/오민석 골(박준서 어시스트), 후반 16분/한지원 골, 후반 20분/박준서 골, 후반 31분/박준서 골(문재정 어시스트)), 박준서는 완중중을 상대로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글로벌선진학교의 김성일 감독은 “동계훈련을 통해 팀을 재정비하고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중등 축구 선수들을 잘 키워내겠다”고 인사를 전하며 내년 2월에 치러지는 춘계연맹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홈페이지 <https://www.gvcs-es.org>
문의 (043)871-7050~2(입학상담실) 충북 음성군 원남면 원종로 406-9



신간안내

손수레를 끄는 목사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읽은 이 책은, 1902년 누구도 생각 못 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세계적인 구호단체 ‘웃음’의 첫 시작부터 세계적인 단체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과 창립자 에드거 헬름스 목사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쓰던 옷과 물건을 기증받아 깨끗하게 수선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얻고, 소비자들은 값싼에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구호 사업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회’와 ‘일자리’를 줌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구호 사업의 인식을 새롭게 하게 했다. 이 사업은 세계로 뻗어 나가 2003년에는 한국에도 진출, 전국에 수십 개의 가게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역자 : 배이트리체 플럼/전소윤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19-11-21 | (145*210)mm 328p | 판매가 : 15,000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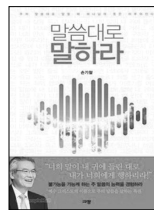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갱신과 개혁의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학자들이 옳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더 주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상실을 놓고 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더 정교한 접근 방식, 더 효율적인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더 나은 홍보와 더 세련된 광고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새로운 브랜드로 교회를 다시 포장하려 한다.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소비자라 된 이후 이들에게 소비자 관점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더 좋고 더 나은 더 세미한 것에 중독된 그들을 만족시킬 방법으로 복음을 재해석한다.

저자/역자 : 유진 피터슨/홍병룡 | 출판사 : IMP

발행일 : 2019-11-22 | (133*210)mm 294p | 판매가 : 14,000원

말씀대로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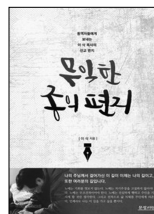


이 책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믿음의 기도와 긍정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영원한 하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풀어냄으로써 말씀, 선포, 믿음, 행동에 대한 하나님나라의 영적 원리, 우리에게 임한 현재적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적용하고 실증해준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는 말 역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영이요 생명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 손기철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19-12-02 | (145*210)mm 264p | 판매가 : 14,000원

무익한 종의 편지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일하시고 있는 기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저자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고난과 핍박의 길이 생생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여전히 핍박받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 교회, 복음이 들어갈 구멍조차 없는 아랍 지역의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비록 가시밭길과 같은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력 가시는 그 일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저자 : 이삭 | 출판사 : 문광서원

발행일 : 2019-11-11 | (140*210)mm 274p | 판매가 : 12,000원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9 겨울 산행기도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우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기진 목사 재천수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중교회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새김천교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시무)
경북 김천시 신기길7길 ☎ 054)437-9182



생명 나눔으로 이웃 사랑 실천

전국 219명 성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교회들이 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화정교회(담임 김성덕 목사)는 지난 11월 24일 주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를 고백했다면, 이날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김성덕 담임목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 아픔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김 목사는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곁에서 그들의 이웃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강단에 오른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하루 8명에 가까운 이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장기

부전 환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이웃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자"고 독려했고, 그 결과 청년들을 비롯한 모두 152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같은 시간 부산과 철원에서도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어졌다. 부산 시하구의 한울교회(담임 목사 제인출 목사)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 나눔예배를 드려 눈길을 끌었고,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군인교회인 삼성교회(담임 임정인 목사)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장기기증을 다짐한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24일 주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19명의 성도들이 생명 나눔을 약속했다.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생명나눔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교회를 통해 흘러간 사랑이 많은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 드림스쿨 홈커밍데이’ 성료

취약계층 아동들의 램 실현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두산 연강원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2019 드림스쿨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월드비전은 지난 2012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와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에게는 두산 인프라코어 임직원들과의 1:1 멘토링, 전문인 멘토링 강연, 직업 체험 등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현재 월드비전 드림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82명과 멘토로 참여한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드림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올 한해 동안 꿈을 위해 진행한 활동을 글과 영상 등으로 표현한 '꿈의 벽(Dream Wall)'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콘서트 '나의 이야기와 전문인 멘토링 강연' 등이 이어져 아동들의 꿈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영화 상영, 드림스쿨 졸업생을 기념하는 배지 수여식, 두산인프라코어 직원 멘토와 학생 멘티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미니 올림픽 '드림픽(Dreampic)'과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사명 감당하고 싶다!

저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광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예란 권사입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지만 실천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전도 할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는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학장 박영수 목사를 초대해 전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고대하고 기다린 전도의 날입니다.

먼저 동영상 통해 비가 내리는 날 우산 속에서 전도하는 모습, 버스정류장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경이로워 보였습니다

1시간동안 전도의 강의와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도법으로 쉽고 빠르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훈련을 잘 받으면 능력전도자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 아파트와 상가를 중심으로 전도의 시범을 보여주는 박영수 목사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법은 열매가 없는 전도였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세트전도는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전도였습니다. 3시간여 동안을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일에 가져처럼 딱딱 시장님이 교회에 오셨고, 한분의 새로운 성도가 스스로 와서 등록하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접기도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 전도이지만 성령충만 받고 성도들이 사랑의 피로 하나가되어 전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방법을 계속전수받고 배워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광문교회 김예란 권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성민원,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

군포 관내 재가·결식가정에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신하 단체인 사단법인 성민원과 군포제일교회가 따뜻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성민원 직원들과 군포제일교회 성도 등 총 14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1월 20(수), 21일(목) 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에서 이들에 걸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00kg의 김장을 담그고 각 가정에 전달할 박스를 포장했다. 또한,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를 군포시 지역 내 재가 및 독거 어르신 가정과 결식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센터에 전달했다.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시무)는 "매년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김장 나누기를 통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



누는 겨울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포제일교회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이번 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설기

관으로 성민원을 설립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선교협의회 제143차 월례회 세션협 본부에서 개최

2019년도 제3차 단기선교 은혜 가운데 마쳐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션협) 제143차 월례회가 11월 28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70 소재 세션협 본부에서 개최하여 1부 예배, 2부 회의의 순으로 진행하고 기도와 전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1부 예배는 김재선 목사(무지개선교회)의 인도로 송만석 목사(하나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최미영 목사(한빛찬양교회)의 '오늘을 위한 기도' 특송, 김서경 목사(열방순복음교회)는 '광야생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광야 삶을 이기는 비

결은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증거했다.

이어서 김순양 목사(예수사랑선교교회)의 봉헌기도,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선교협의회를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기 진인숙 목사(지구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진

인숙 목사가 회원점명 17명 참석, 회의록서기 행정회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양희계보고는 전종호 전도사, 회계보고 송민자 목사, 총무보고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 전순임목사가 2019년도 제3차 단기선교보고를 했다.

안건토의 사항으로는 회원 모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했으며 학교 수도공사에 대해서 전순임 총무가 확인하여 12월 월례회에 보고 하기로하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여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KS두레 글로벌 금융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 창립 10주년 감사, 대표 최의식 장로(대림벤엘교회) 말씀묵상으로 하루시작, 어려운 이웃 섬김 앞장

정부용 목사, 축사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찬양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시무장로인 최의식 장로는 지난 11월 21일(목) 오후 5시 30분 63빌딩 기념행사를 갖고 창립이후 10주년에 이르기까지 한바



음 되어 서로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 주었던 동료 선배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새롭게 이루어 갈 10년을 기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창립 기념식은 먼저 대림벤엘교회 당회장 정부용 목사의 축하의 말씀이 있었으며, 10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감사패, 우수관리자 사상, 우수 FC사상, KS두레총괄 대표 최의식 장로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이날 정부용 목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두려워 말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므로 큰 복을 받고 이를 영혼구원을 위해 값지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의식 장로는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고 10년 동안 마음을 같이해 준 영연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념 케이크 커팅 후 만찬을 함께하고 2부 식후행사 로 클래식 연주회가 열려 초겨울 밤 아름다운 선율에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사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다.

최의식 장로는 글로벌금융판매 KS두레를 이끌어 오면서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경영해 왔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진심을 다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왔다.

정부용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 고전 3:9 -

- |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낮 12시~5시까지
- | 장 소 |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379 (대림동 1116-49) ☎ 02) 845-5095
-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전원
- | 문 의 | 국장 백영자 목사 (010-3638-0120)
- | 후원계좌 |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모시는 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려는 12월의 중턱에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 하였습니다.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섬기시던 목회사역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므로 주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소원하며,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교역자국 송년예배에 여러분을 초청 합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

1부



말씀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사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기도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 사회 : 국장 백영자 목사
- 말씀 : 고문 정부용 목사
- 기도 :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 지부장 소개 및 인사

2부 : 조별 및 전체 코이노니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2시~오후1시	점심식사(오시는대로 자유롭게)	2층 교회식당
오후1시~오후3시	송년예배 및 합심기도	대 예배실
오후3시30~오후5시	조별 편성 및 기도제목 나눔	3층 소성전
오후5시	저녁식사 후 귀가	2층 교회식당

● 11:30부터 점심입니다

조직

임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진교회



예배부장
기정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선교부장
희복교회
김순자 목사



복지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위순복음교회
김겸자 목사



홍보부장
대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진애 목사



기획부장
일산벤엘교회
조영란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빛교회
조은애 목사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님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서울중부지부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중남지부 지부장
예수행교회
정예스더 목사



서울강남지부 지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경기지부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부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지부 지부장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부 지부장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일산지부 지부장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대전지부 지부장
목자교회
김행시바 목사



충북지부 지부장
농평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부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충청지부 지부장
서산장자교회
오수경 목사



충청남지부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부 지부장
세계교회
정금자 목사



영남동지부 지부장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부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부 지부장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전북지부 지부장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광주지부 지부장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호남지부 지부장
순복음동산교회
정복래 목사



은진지부 지부장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죄의 사슬
그 무게가 얼마이던가!!
세상의 어떤 자도...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 죄 짐 다 지신 주
그 문제 해결했네

사랑의 주 내 아버지
이 큰 구원 이루셨네

무겁던 죄의 사슬 끊어주시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자유케하시라
성령 안에 진리 안에
평안 누리며
내 영혼 만끽하며 자유누리네

죄의 사슬
그 무게가 얼마이던가!!
오직 예수 보혈로써
오직 주님 한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다
그 무게운 죄의 짐 지고 가신 예수님 은혜.
그 감격을 다시 만끽한다.

미래목회포럼 제16회 정기총회

한국교회 미래 변화와 개혁 위해 사명감당 다짐

미래목회포럼 제16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2일(월) 오전 11시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신임 대표회장에게 고명진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이사장에 오정호 목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무는 대표 김봉준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심상효 목사의 대표기도, 이상대 목사의 정기이

사회 경의 및 정관계정안 보고,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의 사업보고, 양인순 목사의 감사보고, 임영문 목사의 회계보고,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16회기 대표 및 임원인준 절차를 갖고 사업계획안을 신임원에 위임하고 각종 회무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이·취임 및 위촉감사예배는 이사 이상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희수 목사의

기도, 황덕영 목사의 성경봉독, 연동교회 원로 이성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수 3:1-6 말씀을 본문으로 '가나안을 향한 거룩한 순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미래목회포럼의 현재의 모습을 보며 초대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 또 기도와 성원을 보낼 것을 강조하고 더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직전대표 김봉준 목사와 직전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이임사, 신임대표 고명진 목사와 신임이사장 오정호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으며 고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사명감당을 다짐했으며 오 목사는 미래목회포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김진호 감독, 김수읍 목사는 축사를 통해 미래목회포럼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큰 복이 함께 할 것을 축복했다.



사설

안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청진도에서 남쪽으로 해안포를 쏘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민에게 입을 닫고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등이 11월 25일 오전에 보도한 이후 언론 질의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로 뒤늦게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국방부는 여전히 언제 어느 방향으로 쏘는지, 사거리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쉬쉬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도발을 숨기는 것은 물론 제대로 정면 대응하지도 못한 것은 국가 안보의 포기나 다름없다. 최근 탈북민 강제 복송, 대북 친서 등 국민에게 감추는 대북 현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국민 앞에 선서한다. 헌법 제89조 그런데 본 정부가 영토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할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11월 25일 '한·아세안 CEO 서밋' 인사말을 통해 "북한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바란다"며 북한을 감쌌다. 차마 안보의 최종 책임자 및 국군통수권자의 말로 믿기 힘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으며 국민을 지켜내는 최후

의 보루인 안보만큼은 단호해야 한다. 정치권은 명분과 정의가 빛이 바래고, 이 탓에 정치력이 약화 될수록 편 가르기식 이진투구 양상은 심화되고, 갈 길 잃은 국민의 괴리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약속은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경제, 사회, 정치, 안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의 위기는 불확실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위기를 인식하는 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사지로 들어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도 끝모르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는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와 다른 사람까지 망라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지처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헤쳐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 31:6)

군을 무너트리는 행위 좌시할 수 없어

그 동안 군인권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와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지난 8월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임 소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요청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09년에 임태훈 소장에 의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2012년 민주당 비례 대표에 공천신청을 한 적도 있고, 또 2017년 11월에는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 단체는 나름대로 군대 내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여 출발했지만,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현상금을 내건 건이 법에 어긋난 '모금 활동'을 벌여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이번엔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발당한 사건은, 임 소장이 과도하며 과욕에 의한 폭로성 행위가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고발 사건을 검찰에 접수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에 보면, 군대의 생명은 보안과 군기이며, 군인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불신과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스러움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무리한 활동을 통하여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갑질' 행동을 한 것이 법률적 판단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①호 270만원 ②호 370만원 ③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 시 2020년 1월 6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 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 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0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재영
총무 목사 이경진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2019년 조용목 목사 초청 송년예배 및 임직식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증경총회장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이용주 목사
증경총회장
홍제은혜교회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영동제일교회



최승천 목사
선일장로교회



최영길 목사
성산감리교회



김덕영 목사
서울중앙지방회장
진리교회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장 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동제일교회
(담임 김용덕 목사)
강릉시 송정동 송정길 5-12
(010-6432-0861, 033-652-0861)



임직 대상자

장로 장립
김진태 안수집사



권사 취임
원순희 집사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총회목회대학원 졸업예배

(사이버신학연구원 제3회, 총회신학교 제9회, 총회목회대학원 제12회)



2019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9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총회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11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총회목회대학원